

전주국제영화제 '100 Films 100 Posters'

100명 그래픽 디자이너 참여 100편 영화 포스터 제작·전시
주전시 29일~5월 17일 개최·현수막 포스터 전시 등 일정 공개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와 디자인의 결합을 다룬 대표 프로그램 '100 Films 100 Posters'의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100명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참여해 영화 100편의 포스터를 제작·전시하는 협업 프로젝트다.

주전시는 오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문화공간작당 문화팔레트에서 개최되며 김은지 디자이너가 큐레이터로 참여한다.

현장에서는 포스터 열서집 판매와 포스터숍 운영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영화의거리 일대에서는 4월 29일부터 5월 23일까지 현수막 포스터 전시가 이어진다.

올해 주제 프로그램 '살롱 100 Films 100 Posters'는 '시네마타운'을 주제로 극장의 시각 문화를 다루며 주제전과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된다.

주제전에서는 국내 영화관 공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한 작업이 공개된다.

김선영, 전소영, 성의석, 현다혜 등 사진가 4인이 참여하며 대구영화발전단의 영상 작품도 함께 상영된다.

라운드테이블은 5월 1일 두 차례 진행되며 극장과 디자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네마틱 경험을 논의한다.

'디자이너, 영화관을 디자인하다' 세션에는 김은지, 최지용, 현준혁 디자이너가 참여한다.

이어 '장소 만들기로서의 영화관 디자인' 세션에서는 김상민 대표와 박예원 큐레이터, 이한재 대표가 참여한다.

또한 5월 10일에는 김성구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포스터 디자인 워크숍이 문화공간작당에서 진행된다.

한편,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시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100 Films 100 Posters' 포스터

김재훈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고평

7부 '강패와 고평' (6)

내 어머니가 박명희가 맞습니까?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그러다 아내 고개를 돌렸다. 기억을 못하는 건가.

"으흠....., 댁하고 내가 뭔가 인연이 있어 보이는데....."

넘겨짚는 건지 아니면 느껴지는 신짐이 있는 건지 배순옥은 앉은 자세를 고쳐서 바르게 앉았다.

"박명희라고....."

"어허....."

이제야 알겠다는 듯 긴장한 눈과 어깨를 탁 풀며 배순옥은 동식을 바로 쳐다봤다.

"제가 강동식입니다."

"동식은 고개를 슬쩍 숙이며 말했다."

"이이고, 이란....."

배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식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는데 몹시 반가운 표정을 지었고 곧 울 것처럼 눈시울이 별게졌다.

"그때 그 동식이 이렇게 컸네, 이이고 세상에나....."

배순옥은 결국 눈물을 글썽였다. 동식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배순옥은 동식을 낳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지만 박명희는 동식을 낳은 사람이었고 강남준은 동식의 아버지였다.

강정근과 강우이 자 수녀로부터 들었던 박명희와 강남준의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의 궤적이 한꺼번에 동식을 덮쳐왔다.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동식은 두손을 배순옥에게 잡힌 채 고개를 숙이고 훌쩍거리며 울었다. 배순옥은 앉



배순옥 시로 제작된 이미지

은 자리에서 동식에게 더 다가와 동식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등을 쓸어줬다.

"미안하네, 나도 그만 여러 사정이 생겨서 자네가 고평원에 있다는 것을 수소문해서 알았고 자네가 얘기 때 몇 번 찾아왔지만, 그 뒤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찾아가보지 못했다."

"내 어머니가 박명희가 맞습니까?"

배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무당 일을 배우려고 갔었지. 연기 마을로"

"증조의할머니하고 친척관계라고 하던데."

배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머나....."

배순옥은 가만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천천히 동식에게로 눈을 맞춰왔다.

부안예술회관, 도내 문화예술 중심기관 위상 입증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 도내 최다 선정

부안군은 부안예술회관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문화예술 공모사업에서 도내 최다 선정과 함께 최고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며 도내 문화예술의 중심 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부안예술회관은 최근 발표된 재단 주관 공모사업 결과에서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총 3개 분야에 연이어 선정됐다.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업에는 군이 전통예술인 타무의 작품 '수성당, 개양할미의 너른 품'으로 선정돼 도비 4200만원의 지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역 고유의 전통자원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또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사업에서는 포스아트컴퍼니의 '부안 개양할미 퍼레이드'가 선정되며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거리에

술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는 부안예술회관과 상주단체 콘사노가 도비 8000만원을 확보하며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공연 생태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사업 선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역 전통문화 자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공연과 축제, 상주단체 육성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국제영화제-강동오케의 풍년제과, 3개년 업무협약

전주국제영화제와 (주)강동오케의 풍년제과가 지역 창작 생태계 활성화와 영화제 운영 협력을 위해 3개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와 (주)강동오케의 풍년제과 신미순 대표는 지난 16일 풍년제과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풍년제과는 전주국제영화제 특별부문 'J비전상' 시상금을 후원한다.

J비전상은 지역공모 선정작 중 1편을 대상으로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를 수여하며 지역

창작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된다.

또한 풍년제과는 영화제 공식 제휴업체로 참여해 게스트와 관객, 스태프, 자원봉사자에게 제품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대표 제과 브랜드로서 영화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소비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은 지역 기업과의 협력이 지역 창작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지역 기업 참여



김재훈 기자

익산시, '1시민 1미술' 운영... 25팀 선착순 모집

익산시가 시민 누구나 미술을 배우며 예술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1시민 1미술'에 참여할 25팀을 모집한다.

1시민 1미술은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미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30개 팀, 930여 명이 참여해 미술 기초를 익히며 작가의 꿈을 키웠다.

올해 개설된 강좌는 △수채화 △어반스케치 △오일파스텔 △민화 등 4개 분야 입문 과정이다. 수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 소속 중견 작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

성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익산 시민으로,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가족·동료·지인 등 5~10명과 팀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팀은 5월부터 8월까지 총 12회 강습을 받을 수 있고, 수업 종료 후에는 전시회를 통해 완성한 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한다.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063-831-792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비용이나 환경적 제약으로 미술을 배우기 어려웠던 시민들이 1시민 1미술을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